

초등학생의 공격성 및 자존감과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에 나타난 스트레스 및 대처 간의 관계

안 은 주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정 성 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공격성 및 자존감이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에 나타난 스트레스 및 대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293명(남:149명, 여:144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은 자존감 및 대처자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존감은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대처능력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는 대처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대처자원은 대처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공격성 하 집단이 공격성 상 집단에 비해서 대처자원과 대처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많은 비’, ‘다중 강수나 강설’ 항목에서 공격성 상 집단이 공격성 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바람’ 항목에서는 공격성 하 집단이 공격성 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완전무결한 보호’, ‘몸의 일부가 빠짐’ 항목에서 공격성 상 집단이 공격성 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장화’ 항목에서는 공격성 하 집단이 공격성 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자존감 상 집단이 자존감 하 집단 사이에는 스트레스, 대처자원, 대처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많은 비’ 항목에서 자존감 하 집단이 자존감 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구름’ 항목에서는 자존감 상 집단이 자존감 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처자원의 모든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가 아동의 공격성과 자존감을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제한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공격성, 자존감,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정성진, (0179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Tel: +82-2-3399-1675, E-mail: sjchung@syu.ac.kr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을 주고 성장의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는 정신적 및 신체적 고갈을 초래하여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성인에 비해 초등학생은 경험의 부족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과 언어적 표현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박성민, 임정하, 2021). 특히 현대 아동들은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 반적인 스트레스 이외에도, 부모와 사회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하여 만들어진 경쟁구도, 과도한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감,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과거의 아동들과 비교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김영진, 1999; 박은미, 백경미, 이지현, 2011). 아동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이나 불안 문제가 증가하고, 공격성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김신아, 송하나, 2012; 이영옥, 이정숙, 2011). 물론 동일한 내용과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이에 잘 대처하여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박소은, 김경화, 2016). 따라서 정신건강 향상과 건강한 적응을 돋기 위해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자원이 충분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송혜민, 2016). 문헌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 가운데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자아탄력성 등이 중요한 변인으로 많이 언급된다. 특히 자존

감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이나 공격성을 적게 보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과 태도를 유지한다(Stein, 1995).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인 자존감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여 바람직한 적응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송혜민, 2016),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초래되는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정서문제, 비행문제, 공격성 등이 있는데(심은실, 김예혜, 2011),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공격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이를 피하기 위해 신체적 혹은 언어적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적대적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정옥분, 2002), 오늘날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부담을 크게 경험하는 아동들은 기대한 대로 성취하지 못할 경우 좌절과 부정적 감정을 겪으면서 공격성이 촉발될 수 있다(김민주, 이동귀, 2018). 아동의 공격성은 청소년기 비행과 성인기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이혜정, 위슬아, 김범준, 2015), 스트레스에 공격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의 스트레스와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초기로 이어지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은 학업, 신체적 변화, 이성교제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지만(구계화, 김종희, 2014), 인지 및 정서의 발달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필요한 자원이 더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정원주, 1997).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이 발달

수준이 다르고 특성과 맥락이 다르고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스트레스도 초등학교 고학년에 초점을 맞춰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연구나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다양한 측정방법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심리검사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아동의 연령, 인지능력, 언어발달 수준 혹은 동기 등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김순란, 최외선, 2004). 이에 반해 투사적 그림검사는 비교적 연령이나 능력에 따른 제약이 적고, 심리검사에 대한 의식적 저항이 적어서 심리적 갈등을 비교적 잘 드러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김병철, 김성삼, 최영주, 2014). 따라서 아동상담 현장에서는 비교적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고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보완해주는 도구로 투사적 그림검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함정심, 정영인, 2019).

투사적 그림검사 가운데 하나인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는 프랑스에서 Fay가 1923년부터 개발한 것으로, 인물화 검사에 '비'가 첨부된 것이고 영문 명칭은 'Person In The Rain(PITR)' 혹은 'Draw A Person in the Rain(DAPR)'인데, 둘 다 같은 검사지만 전자는 '빗속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후자는 인물화(DAP) 검사에 '비'가 더해진 점을 강조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주리애, 2015).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는 내담자가 느끼는 현재의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진단하는 검사이다.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에서 '비'는 환경적 스트레스를, 비를 막는 '보호물'은 스트레스 대처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되던 인물화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Hammer, 1958; 손무경, 2004 재인용).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는 비교적 간단한 도구만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고 평균 10~30분가량 소요된다는 특징도 있지만, 그림의 필압, 크기, 위치를 보고 공격성과 자존감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빗속에 사람 그림검사를 활용한 연구는 손무경(2004)의 연구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정아람(2006)은 초등학생의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스트레스 점수와 대처능력 점수가 우울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고, 장미애(2011)는 우울 성향이 높은 아동과 일반 아동이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반응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구계화(2013)는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가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와 학업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송혜민(2017)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존감이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스트레스 점수와 부적 상관을, 대처능력 점수와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옥기와 김갑숙(2016)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격특성과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반응특성의 관계를 연구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성격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확대되고 있는 점(김민주, 이동귀, 2018; 심은실, 김예혜, 2011; 이해정, 위슬아, 김범준, 2015)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격성이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와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자존감이 빗속의 사람 그림검

사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격성 및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반응 양식에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공격성과 자존감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격성,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자원 및 대처능력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격성 수준에 따라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스트레스, 대처자원 및 대처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존감 수준에 따라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스트레스, 대처자원 및 대처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방법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B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이며, 총 293명이었다. 참여자 가운데 남학생은 149명(50.9%), 여학생은 144명(49.1%)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 108명(36.9%), 5학년 91명(31.0%), 6학년 94명(32.1%)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만 9세부터 12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10.61 ($SD=0.90$)세였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편의표본 추출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교사와 보호자인 부모에게 연구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

고 부모가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도구

공격성. 공격성 척도는 Buss와 Durkee(1957)가 32문항으로 제작한 BDII(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를 노안영(1983)이 번안하여 수정한 것의 단축판(12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공격성(1~6번), 적대감(7~9번), 분노감(10~12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총 12문항에 응답하게 되어 있고, 총점의 범위는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5였다.

자존감.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RSES(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총 10문항에 응답하게 되어 있고, 총점의 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를 사용하였다.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채점표는 Lack(1996)의 PITR-SRC(Person In The Rain-Stress, Resource, Coping capacity) 척도를 손무경(2004)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채점표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6개의 항목과 스트레스 대처자원을 측정하는 1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기준은 부록 1과 같다. 스트

레스 척도의 S1부터 S8까지는 각 항목에 해당되면 1점을 부여하고, S9부터 S16까지는 해당되는 숫자만큼 점수를 부여하여 채점한다. 자원 척도의 R1부터 R15까지는 각 항목에 해당되면 1점을 부여하되, R14는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으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R16은 선의 질감이 일반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 1점을 주고, R17은 인물이 어쨌든 옷을 입고 있으면 0점을 준다. R18은 생략된 신체 부분 하나당 1점씩 부여하고, R19는 이빨이 있으면 1점을 준다. 스트레스 점수는 S1~S16 점수의 합계이고, 자원 점수는 R1~R16 점수의 합계이다. 대처자원 점수는 자원 점수에서 R17~19 소계를 뺀 점수이며, 대처능력 점수는 대처자원 점수에서 스트레스 점수를 뺀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 경력 10년 이상인 심리학 박사생 2명과 제1 저자가 채점자로 참여하였다. 채점자 3인이 동일 그림 10점을 함께 채점하면서 채점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채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그림 중 50점을 무선표집 하여 채점자 3인이 각각 채점한 결과, 평정자간 일치도는 $r=.91\sim.1.0$ 이었다.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변수의 경향성과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연구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격성 수준과 자존감 수준에 따라 주요 연구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주요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연구변수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요 연구변수들의 웨도의 절댓값이 3보다 작고 첨도의 절댓값이 10보다 작으므로 모든 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주요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공격성은 자존감($r=-.37, p<.001$), 대처자원($r=-.13,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존감은 스트레스($r=-.11, p<.10$)와 유의한

표 1. 주요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N=293$)

	최솟값	최댓값	$M(SD)$	웨도	첨도
1. 공격성	12	59	21.16(7.05)	1.24	3.05
2. 자존감	13	50	39.08(7.92)	-.74	.16
3. 스트레스	0	13	4.71(2.40)	.60	.46
4. 대처자원	-6	11	4.29(3.38)	-.54	-.24
5. 대처능력	-13	9	-.42(4.15)	-.34	-.28

부적 상관을, 대처능력($r=.12, p<.05$)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는 대처능력($r=-.58,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대처자원은 대처능력($r=.8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공격성 수준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점수와 반응특성의 차이

공격성 수준에 따라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공격성의 평균 21.16($SD=7.05$)에 1 표준편차를 더한 값보다 큰 점수를 보인 표본을 공격성 하 집단($n=39$)으로, 공격성의 평균에 1 표준편차를 뺀 값보다 작은 점수를 보인 표본을 공격성 하 집단($n=47$)으로 설정한 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처자원에서

공격성 하 집단이 공격성 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t(84)=2.15, p<.05$, 대처능력에서 공격성 하 집단이 공격성 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t(84)=1.94, p<.10$. 스트레스는 공격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격성 수준에 따라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스트레스 각 항목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격성 상 집단이 공격성 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S3 '많은 비' 항목과, $t(84)=-1.78, p<.10$, S12 '다중 강수나 강설' 항목이었다, $t(84)=-3.54, p<.01$. 반면 S8 '바람' 항목에서는 공격성 하 집단이 공격성 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t(84)=1.69, p<.10$.

표 2. 주요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N=293)

	1	2	3	4	5
1. 공격성	-				
2. 자존감	-.37***	-			
3. 스트레스	-.02	-.11†	-		
4. 대처자원	-.13*	.08	.01	-	
5. 대처능력	-.09	.12*	-.58***	.81***	-

† $p<.10$, * $p<.05$, ** $p<.001$

표 3. 공격성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자원, 대처능력의 차이

변수명	공격성 하 (n=47)		<i>t</i>
	<i>M</i>	<i>SD</i>	
스트레스	4.26(2.13)		-.65
대처자원	5.40(3.55)		2.15*
대처능력	1.15(4.27)		1.94†

† $p<.10$, * $p<.05$

표 4. 공격성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항목 반응의 차이

항목	공격성 하 (n=47)		공격성 상 (n=39)		t
	빈도	M(SD)	빈도	M(SD)	
S1 비가 없다	1	.02(.15)	2	.05(.22)	-.75
S2 비가 있다	46	.98(.15)	37	.95(.22)	.75
S3 많은 비	25	.53(.50)	28	.72(.46)	-1.78*
S4 비의 스타일	12	.26(.44)	10	.26(.44)	-.01
S5 인물 방향으로 있는 비	22	.47(.50)	16	.41(.50)	.53
S6 접촉하고 있는 비	10	.21(.41)	10	.26(.44)	-.47
S7 젖다	14	.30(.46)	9	.23(.43)	.69
S8 바람	16	.34(.48)	7	.18(.39)	1.69†
S9 웅덩이	17	.36(.85)	11	.28(.92)	.42
S10 웅덩이에 서 있다	3	.06(.25)	1	.03(.16)	.83
S11 다양한 비 스타일	2	.04(.20)	2	.05(.22)	-.19
S12 다중 강수나 강설	17	.37(.49)	33	.85(.75)	-3.54**
S13 번개, 번갯불, 화살	0	.00(.00)	3	.08(.35)	-1.50
S14 번개 강타	1	.02(.15)	0	.00(.00)	.91
S15 구름	7	.15(.55)	8	.21(.80)	-.38
S16 먹구름	6	.13(.54)	1	.03(.16)	1.15

† $p<.10$, ** $p<.01$

표 5. 공격성 수준에 따른 대처자원 항목 반응의 차이

항목	공격성 하 (n=47)		공격성 상 (n=39)		t
	빈도	M(SD)	빈도	M(SD)	
R1 보호물이 있다	33	.70(.46)	30	.77(.43)	-.69
R2 우산이 있다	30	.64(.49)	23	.59(.50)	.46
R3 들고 있는 우산	0	.00(.00)	0	.00(.00)	—
R4 다른 보호장치	3	.06(.25)	6	.15(.37)	-1.36
R5 적절한 크기의 보호물	30	.64(.49)	19	.49(.51)	1.41
R6 완전무결한 보호	1	.02(.15)	6	.15(.37)	-2.25*
R7 우비	3	.06(.25)	1	.03(.16)	.83
R8 비 모자	4	.09(.28)	3	.08(.27)	.14
R9 장화	8	.17(.38)	1	.03(.16)	2.22*
R10 옷을 입고 있는 인물	46	.98(.15)	35	.90(.31)	1.61
R11 얼굴 전체가 보임	35	.74(.44)	24	.62(.49)	1.28
R12 얼굴의 미소	13	.28(.45)	10	.26(.44)	.21
R13 중심에 있는 인물	21	.45(.50)	12	.31(.47)	1.32
R14 인물의 크기	21	.45(.50)	13	.33(.48)	1.07
R15 전체 인물	40	.85(.36)	31	.79(.41)	.68
R16 선의 질	30	.64(.49)	23	.59(.50)	.46
R17 나체	0	.00(.00)	0	.00(.00)	—
R18 몸의 일부가 빠짐	63	1.34(1.42)	90	2.31(1.38)	-3.19**
R19 이빨	1	.02(.15)	1	.03(.16)	-.13

* $p<.05$, ** $p<.01$

공격성 수준에 따라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대처자원 각 항목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격성 상 집단이 공격성 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R6 '완전무결한 보호' 항목과, $t(84) = -2.25$, $p < .05$, R18 '몸의 일부가 빠짐' 항목이었다, $t(84) = -3.19$, $p < .01$. 반면 R9 '장화' 항목에서는 공

격성 하 집단이 공격성 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t(84) = 2.22$, $p < .05$.

자존감 수준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점수와 반응특성의 차이

자존감 수준에 따라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자존감의

표 6. 자존감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자원, 대처능력의 차이

변수명	자존감 하 (n=49)		자존감 상 (n=56)		t	
	<i>M(SD)</i>		<i>M(SD)</i>			
스트레스	5.22(2.62)		4.73(2.45)		.99	
대처자원	3.86(2.80)		4.39(4.00)		-.79	
대처능력	-1.33(3.91)		-.34(4.47)		-1.20	

표 7. 자존감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항목 반응의 차이

항목	자존감 하 (n=49)		자존감 상 (n=56)		t
	빈도	<i>M(SD)</i>	빈도	<i>M(SD)</i>	
S1 비가 없다	2	.04(.20)	1	.02(.13)	.70
S2 비가 있다	46	.94(.24)	55	.98(.13)	-1.15
S3 많은 비	35	.71(.46)	31	.55(.50)	1.71 [†]
S4 비의 스타일	16	.33(.47)	18	.32(.47)	.06
S5 인물 방향으로 있는 비	25	.51(.51)	24	.43(.50)	.83
S6 접촉하고 있는 비	16	.33(.47)	11	.20(.40)	1.52
S7 젖다	14	.29(.46)	9	.16(.37)	1.55
S8 바람	15	.31(.47)	16	.29(.46)	.23
S9 웅덩이	18	.37(.93)	28	.50(1.10)	-.66
S10 웅덩이에 서 있다	3	.06(.24)	4	.07(.26)	-.21
S11 다양한 비 스타일	1	.02(.14)	4	.07(.32)	-1.02
S12 다중 강수나 강설	38	.78(.72)	33	.59(.71)	1.34
S13 번개, 번갯불, 화살	10	.20(1.15)	3	.05(.30)	.94
S14 번개 강타	0	.00(.00)	1	.02(.13)	-.94
S15 구름	5	.10(.47)	21	.38(.96)	-1.80 [†]
S16 먹구름	12	.24(.78)	4	.07(.42)	1.45

[†] $p < .10$

표 8. 자존감 수준에 따른 대처자원 항목 반응의 차이

항목	자존감 하 (n=49)		자존감 상 (n=56)		t
	빈도	M(SD)	빈도	M(SD)	
R1 보호물이 있다	34	.69(.47)	44	.79(.41)	-1.07
R2 우산이 있다	27	.55(.50)	32	.57(.50)	-.21
R3 들고 있는 우산	1	.02(.14)	2	.04(.19)	-.47
R4 다른 보호장치	6	.12(.33)	11	.20(.40)	-1.02
R5 적절한 크기의 보호물	20	.41(.50)	25	.45(.50)	-.39
R6 완전무결한 보호	5	.10(.31)	10	.18(.39)	-1.11
R7 우비	3	.06(.24)	4	.07(.26)	-.21
R8 비 모자	3	.06(.24)	3	.05(.23)	.17
R9 장화	4	.08(.28)	4	.07(.26)	.20
R10 옷을 입고 있는 인물	43	.88(.33)	48	.86(.35)	.30
R11 얼굴 전체가 보임	28	.57(.50)	38	.68(.47)	-1.13
R12 얼굴의 미소	10	.20(.41)	16	.29(.46)	-.96
R13 중심에 있는 인물	20	.41(.50)	20	.36(.48)	.53
R14 인물의 크기	19	.39(.49)	18	.32(.47)	.71
R15 전체 인물	38	.78(.42)	42	.75(.44)	.30
R16 선의 질	27	.55(.50)	32	.57(.50)	-.21
R17 나체	1	.02(.14)	0	.00(.00)	1.07
R18 몸의 일부가 빠짐	102	2.13(1.38)	105	1.88(1.67)	.82
R19 이빨	1	.02(.14)	0	.00(.00)	1.07

평균 39.08(7.92)에 1 표준편차를 더한 값보다 큰 점수를 보인 표본을 자존감 상 집단($n=56$)으로, 자존감의 평균에 1 표준편차를 뺀 값보다 작은 점수를 보인 표본을 자존감 하 집단($n=49$)으로 설정한 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스트레스, 대처자원, 대처능력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존감 수준에 따라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스트레스 각 항목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S3 ‘많은 비’ 항목에서 자존감 하 집단이 자존감 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t(103)=1.71$,

$p<.10$, S15 ‘구름’ 항목에서는 자존감 상 집단이 자존감 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t(103)=-1.80$, $p<.10$.

자존감 수준에 따라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대처자원 각 항목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처자원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공격성 및 자존감이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에 나타나

는 스트레스와 대처자원 및 대처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공격성과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와 대처자원 및 대처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은 자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존감은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대처능력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자존감이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을, 대처능력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손무경(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스트레스는 대처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대처자원은 대처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반복해서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결과는 아니지만,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항목을 통해서 산출된 스트레스, 대처자원 및 대처능력의 점수도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공격성 및 자존감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공격성이 낮은 집단이 공격성이 높은 집단에 비해서 대처자원과 대처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초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격성이 증가하고 지속성을 가지게 되며, 이 공격성은 성인기의 공격적 성향에 전조가 된다(Caspi, Elder, & Bem, 1987).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의 공격성은 공정적인 아동발달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기 공격성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천애영, 2009). 초등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공격적 성향이 높아지는 데(김영선, 2000) 이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대처자원이 축소되고 대처능력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공격성을 조절하는 방법뿐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자원과 대처능력을 증진하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전미숙, 김현옥, 2013).

공격성 수준에 따라서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스트레스 항목에 나타난 표상들을 비교해 본 결과, '많은 비' 항목과 '다중강수나 강설' 항목에서 공격성이 높은 집단이 공격성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바람' 항목에서는 공격성이 낮은 집단이 공격성이 높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에서 스트레스의 양상을 나타내는 항목들이 공격성 수준에 따라 반응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스트레스가 공격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많지만 아동의 스트레스와 공격성은 연령에 따라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종단연구의 결과(이주리, 2010)를 고려하면, 공격성이 스트레스 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고, 공격성이 낮은 아동이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소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격성 수준에 따라서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대처자원 항목에 나타난 표상들도 비교한 결과, '완전무결한 보호' 항목과 '몸의 일부가 빠짐' 항목에서 공격성이 높은 집단이 공격성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이 스트레스에 주효한 대처방법보다는 비효율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

으며, 대처자원에 결여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반면에 ‘장화’ 항목에서는 공격성이 낮은 집단이 공격성이 높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공격성이 낮은 아동들은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적절한 대처자원과 대처 능력을 동원한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 사이에 스트레스와 대처자원 및 대처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존감이 스트레스 및 대처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하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가 공격성 상하 집단을 변별할 수 있지만, 자존감 상하 집단을 변별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해석 방법을 고도화한다면 자존감 상하 집단을 변별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자존감 수준에 따라서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스트레스 항목에 나타난 표상들을 비교해 본 결과, ‘많은 비’ 항목에서 자존감이 낮은 집단이 자존감이 높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항목은 공격성이 높은 집단이 공격성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항목이기도 하다. 반면에 ‘구름’ 항목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 자존감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구름’ 항목은 스트레스와 부정 정서와 관련된 것인데, 자존감이 높은 아동은 부정 정서보다는 긍정 정서를 많이 표현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구름이 비를 담고 있는 것이고 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존감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더 많이 파악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 수준에 따라서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대처자원 항목에 나타난 표상들도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이 없었다. 이는 자존감과 대처자원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존감이 심리 내적인 특성인 반면에, 스트레스 대처자원에는 심리 내적인 것과 심리 외적인 것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자존감과 스트레스 대처자원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매우 약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의 채점 기준이 표준화되어 가고 있으나, 실제 아동상담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해석 내용들을 살펴보면 표준화된 채점방식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의 아동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집안에서 하는 자기만의 활동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과정에 대해 낯설어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하는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에서 공격성 및 자존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을 일부 발견했지만, 관련 항목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추후 연구에서 채점 방법을 더욱 고도화하고 표준화하여 공격성과 자존감뿐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대처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가 아동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을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구계화 (2013). 초등학생의 또래관계 및 학업스트레스와 빗속의 사람(PITR) 그림 상관연구.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계화, 김종희 (2014).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빗속의 사람(PITR) 그림 반응특성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0(1), 149-171.
- 김민주, 이동귀 (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69-89.
- 김병철, 김성삼, 최영주 (2014). 그림과 심리진단. 서울: 양서원.
- 김순란, 최외선 (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빗속의 아이' 그림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11(2), 185-209.
- 김신아, 송하나 (2012).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 15, 121-135.
- 김영선 (2000).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진 (1999).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양식의 발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안영 (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민, 임정하 (2021).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향: 2010-2020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2(1), 89-103.
- 박소은, 김경화 (2016).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처행동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6), 769-787.
- 박은미, 백경미, 이지현 (2011).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빗속의 사람' 그림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18(6), 1225-1246.
- 손무경 (2004). PITR을 통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측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혜민 (201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과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의 상관연구. 아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은실, 김예혜 (201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외현적-내면적 문제행동의 관계: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4(4), 97-119.
- 이영숙, 이정숙 (2011). 아동·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한 환경, 심리적 문제에 관한 발달단계별 차이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6(1), 53-79.
- 이옥기, 김갑숙 (2016).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격특성과 '빗속의 사람 그림'(DAPR) 반응특성의 관계. 예술심리치료연구, 12(2), 151-171.
- 이주리 (2010). 아동의 스트레스와 공격성 간 종단관계 연구. 아동과 권리, 14(1), 41-58.
- 이혜정, 위슬아, 김범준 (2015).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75-695.
- 장미애 (2011). 초등학교 고학년의 PITR 반응특성 연구: 우울성향과 스트레스 및 대처능력.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숙, 김현옥 (2013).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7(2), 270-281.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9.
- 정아람 (2006).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빗속의 사람' 그림의 반응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주리애 (2015). 미술심리진단 및 평가. 서울: 학지사.
- 천애영 (2009). 음악 감상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

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정심, 정영인 (2019). 아동의 공격성 선별도구로서 '빗 속의 사람(PITR)' 그림 활용 가능성 연구. *미술과 교육*, 20, 175-196.
- Buss, A.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 Caspi, A., Elder, G. J., & Bem, D. J (1987). *Moving against the world: Life course patterns of explosive children*. New York: John Wiley & Sons.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ublications.
- Lack, H. S. (1996). *The person-in-the-rain projective drawing as a measure of children's coping capacity: A concurrent validity study using Rorschach, psychiatric, and life history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lifornia School of Psychology at Alameda.
- Rosenberg, M. (1965). Which significant others? *Am Behavior Sci*, 16, 829-860.
- Stein, K. F. (1995). Schema model of the self concep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7(3), 187-195.

원고접수일: 2021년 12월 27일

논문심사일: 2022년 1월 7일

게재결정일: 2022년 2월 7일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self-esteem, and stress and coping in the People In the Rain Tes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 Eun Ju
Sahmyook University
Doctoral Student

Chung, Sung-Jin
Sahmyook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self-esteem of upp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stress and coping shown in the 'People In the Rain Test(PIRT).' The participants were 293 elementary school children (149 males, 144 females) in grades 4, 5, and 6 from Seo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ggression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coping resource,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tress a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ping ability. Stres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coping ability, whereas coping resour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ping ability. Second, coping resource and coping abilit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low aggression group than in the high aggression group. In the 'heavy rain' and 'multiple precipitation or snowfall' items, the high aggression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low aggression group, and in the 'wind' item, the low aggression group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high aggression group. In the items of 'flawless protection' and 'missing body parts', the high aggression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low aggression group, and in the 'boots' item, the low aggression group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high aggression group.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ress, coping resource, and coping ability between the high self-esteem group and the low self-esteem group. The low self-esteem group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high self-esteem group in the 'heavy rain' item, and the high self-esteem group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ow self-esteem group in the 'cloud' item.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items of coping resour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PIRT used for checking children's aggression and self-esteem were discussed.

Keywords: Aggression, Self-esteem, Stress, Coping with Stress, PIRT

부 록

1.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구성 및 채점표

스트레스 척도			자원 척도					
항목	항목명	점수	항목	항목명	점수	항목	항목명	점수
S1	비가 없다		R1	보호물이 있다		R17	나체	
S2	비가 있다		R2	우산이 있다		R18	몸의 일부가 빠짐(머리, 눈동자 있는 열린 눈, 코, 입, 목, 몸통, 팔, 손가락, 다리, 발 등)	
S3	많은 비		R3	들고 있는 우산				
S4	비의 스타일		R4	다른 보호장치				
S5	인물 방향으로 있는 비		R5	적절한 크기의 보호물				
S6	접촉하고 있는 비		R6	완전무결한 보호				
S7	젖다		R7	우비				
S8	바람		R8	비 모자				
S9	웅덩이		R9	장화		합계	R17~19 소계	
S10	웅덩이에 서 있다		R10	옷을 입고 있는 인물				
S11	다양한 비 스타일		R11	얼굴 전체가 보임		대처항목		
S12	다중 강수나 강설		R12	얼굴의 미소		1. 자원 점수 - R17~19 소계 = 대처자원 점수 2. 대처자원 점수 - 스트레스 점수 = 대처능력 점수		
S13	번개, 번갯불, 화살		R13	중심에 있는 인물				
S14	번개 강타		R14	인물의 크기				
S15	구름		R15	전체 인물				
S16	먹구름		R16	선의 질				
합계	스트레스 점수		합계	자원 점수				